



### 9월의 기도

1. 총재 조용기 목사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시간동안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그분의 삶과 사역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믿음과 사랑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산을 기억하며,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더욱 선교사역에 매진하게 하시옵소서.

2. 은혜로우신 하나님, 가을의 황금빛 들판을 보며 당신의 풍성한 은혜를 찬양합니다. 먼 곳에서 당신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그들의 사역이 열매를 맺고, 그들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당신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항상 당신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3. 오늘날 우리는 세상이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우리 마음 속에 가득 차게 하시고, 그 사랑이 세상 곳곳에 퍼져 나가게 하옵소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모든 이들이 하나 되어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4. 가을의 문턱인 계절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태승, 정경자, 최인철, 함석숙님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별칭 및 익명으로 후원해 주신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예금주 : 디시이엠  
계좌번호 181-22-02127-7 혹은  
256-890020-00804 (하나은행)

###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 더 큰 일을 하시는 성령님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요한복음 16:14)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죄와 싸우고 저주와 절망과 마귀의 권세를 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표는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 땅에서 하셔야 할 일을 다 마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 오신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피 흘려 값 주고 사신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성경에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요한복음 16:14)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 것”이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을 얻게 하심을 말합니다. 이제 성령님께서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2천 년 전에 행하셨던 것을 아무런 제한 없이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을 체험하여 믿음으로 굳게 설 때, 우리들은 고통과 저주와 눈물이 없는 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며 모셔 들임으로써 성령님께서 가져오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故 조용기 목사님의 선교 사역의 발자취와 새로운 선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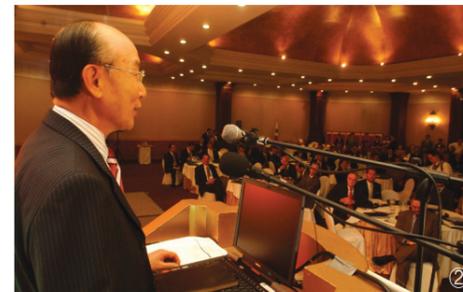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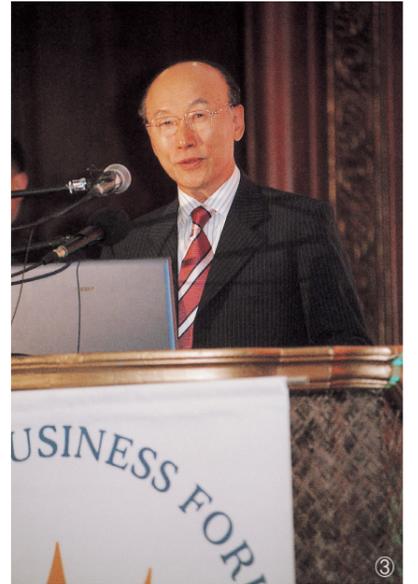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 DCEM 2004년 해외성회

### < 과테말라 성회 >



① ② ③ 첫째날 오전 키타리호텔에서 개최된 킹덤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는 조용기 목사  
④ 조용기 목사 기자회견 모습

중앙아메리카의 멕시코 밑에 위치한 나라, 과테말라. 오랜 독재와 반란 그리고 내전 등 영광과 오욕의 역사로 점철된 과테말라에 2004년 10월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됐다. '2004 과테말라 킹덤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 조용기 목사는 과테말라 실업인과 중남미지역 목회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회복하고 믿음을 가지고 꿈과 비전을 향해 전진하라'고 강조했다.

'2004 킹덤비즈니스포럼' 개최식을 시작으로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동안 열린 조용기 목사 초청 과테말라 대성회는 과테말라 대통령을 비롯해 중남미지역 실업인과 목회자, 신학생, 선교사 등이 대거 참석했다. 삼엄한 경비와 철저한 보안 속에 과테말라시티에 위치한 키타리호텔에서 개최된 성회는 기업의 이익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에 목적을 둔 대표적인 기독교 실업인의 모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업 경영의 원칙으로 삼고 정직

하게 얻은 이익을 하나님의 사업에 돌리는 것을 주목적으로 개최됐다.

조용기 목사는 “기업인으로서 성공하기 원한다면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며 “첫째,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산다. 둘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마귀를 물리쳐 세속적인 유혹에서 벗어나 예수 안에서 정직하고 진실된 사람이 되어 신뢰할 만한 사업가가 되어야 한다. 셋째,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 맡기고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업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기업을 이끄는 것'이라며 “긍정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행동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실천해 타인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설교에 앞서 환영사를 전한 오스카 베르세 과테말라 대통령은 “조용기 목사님이

이곳 과테말라까지 오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과테말라에 와있는 한국 기업인을 비롯해 이곳에 참석한 모든 실업인들이 중남미지역의 경제 성장에 힘을 쏟아주길 바란다”고 말해 과테말라의 발전을 위해 한국과 한국 교회의 도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조용기 목사의 과테말라 방문은 지난 1979년 중남미 교역자 수련회, 1992년 2월 과테말라시 마테오 플로레스 올림픽 국립중앙경기장에서 있었던 '국민 대기도의 날'에 이어 세 번째다. 2004년 조용기 목사의 과테말라 방문에 과테말라 대통령의 아들이자 사업가인 후안 베르세씨가 직접 이끈 시간 공황까지 나와 영접하는 등 각별히 예우했다. 특히 과테말라 센트로아메리카신문은 조용기 목사와 과테말라 오스카 베르세 대통령의 만남을 전면에 소개하는 등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조용기 목사의 방문이 '중남미지역 교회성장을 비롯해 교회간의 협력, 과테말라와 한국간의 경제교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소개했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인생이라는 길을 가다가 돌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그 돌에 걸려서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그 돌을 디딤돌로 삼아 더 멀리 나아갑니다. 인생은 어떤 태도로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긍정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1. 새로운 자화상을 가져라

긍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존중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을 자존감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낮은 자존감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낮은 자존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타인의 시선에 지나치게 민감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시인해 주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도 지나치게 자기방어적이거나, 지나치게 공격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피조물 중에 인간을 가장 존중한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별거없고 부끄러운 자화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 일그러진 자화상이 달라져 회복되

긍정의 삶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중략)...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베드로전서 2장 9~10절)

려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별거없는 자화상과 비천한 자존심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받은 피조물이 아니라, 이제 주님 안에서 용서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새롭게 변화된 자화상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항상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2. 가슴속에 꿈을 품어라

긍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꿈을 심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가진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꿈을 꾸십시오.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 달보다 나아지는 꿈을 꾸십시오. 건강해지고 잘살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복을 받고, 남에게 꾸지 않고 남을 도와주는 삶을 꿈꾸십시오. 우리가 마음속에 꿈꾸는 것은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찍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진 찍은 대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3. 믿음으로 기도하라

긍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마귀는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서 우리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대적해야 긍정적인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한다는 사람도 있는데, 기도는 일상생활 중에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즉각 응답되는 것도 있고, 서서히 응답되는 것도 있고, 나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실 때도 있지만 그 또한 응답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인생이 시끄럽지 않고 고요하며, 아주 순탄하게 굴러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할 뿐 아니라, 기도를 통해 영적인 배설물을 씻어 냅니다.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을 때가 있는데, 날마다 회개기도를 통해 죄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영혼이 잘되고 정돈되고, 깨끗함과 집이 청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기쁘게 거하는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이라는 육체적인 배설물도 기도로 씻어낼 수 있습니다. 마귀가 질병이라는 배설물을 놓고 가면, 그대로 두지 말고 기도로 쫓아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기도는 우울함이나 미움과 원망과 분노 같은 마음의 배설물도 씻어냅니다. 마음속에 미움이나 원망이 들어올 때, 그대로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제 다 끝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아직 기도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일어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친히 일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위대한 일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일에 기도를 통해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면, 어떤 일을 만나도 넘어지지 않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한다면,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자화상을 가지고 가슴 속에 꿈을 품고 기도함으로써,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5

천국으로들어가는문 '회개' 그 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3:1)



① 2007년 조용기목사 일본 선교 30주년 지저스 페스티벌  
② 2008년 일본 아키타 대성회 현장  
③ 2015년 순복음동경교회축복성회때 말씀전하시는 조용기목사와 통역을 한 시가끼 시게마사목사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여섯 달 먼저 제사장 사가랴와 그 아내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사가랴 부부는 슬하에 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늙어서 도저히 자식 낳기를 바랄 수도 없는 노부부에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세례 요한은 기적으로 잉태되어 예수님보다 여섯 달 먼저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잉태되기 전부터 평생 나실인으로 택함 받았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즉,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시키는 선배대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할 때 선배대가 먼저 준비 작업을 하고 잘 정비해 놓으면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기 전에 우리 교회의 선교회 임원들이 먼저 가서 성회 장소부터 시작해서 성회 준비 상황을 모두 살펴보고 잘 정비해 놓으면 내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선배대가 잘 정비해 놓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무척 힘이 듭니다. 그러므로 준비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본격적으로 사역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야 하

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선배대인 세례 요한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유대 광야에서 회개와 천국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함으로써 사람들이 회개하고 마음을 가다듬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3:2,3)

우리가 현재 사는 나라는 세상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종교나 율법이나 제도를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계와 정신계를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지 일시적으로 종교를 창설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복음은 하늘 나라를 세우는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천국)는 회개해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회개는 근본적으로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던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는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사40:3) 마태는 이 예언을 인용하여, 세례 요한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바로 그 사람이라고 증거할 것입니다.

\*영산강에는 조용기목사님의 마태복음 강해서 「예수 그리스도의세계」에서 요약 발췌하였습니다.